

법 어

두륜산의 초목은 푸르고 꽃들은 형형색색으로 수려합니다. 이렇게 산색이 좋고 물소리 분명하니 이 자리가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도량입니다.

오늘 두륜산 아래 청정도량 대흥사에서 청허당 휴정 대선사의 탄신 494주년을 맞아 사부대중과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대선사의 덕화를 추앙하고 계승하고자 모였습니다. 참으로 성스럽고 뜻 깊은 법석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발심하고, 깨달음을 성취하고, 전법하고 회향하신 혜명을 대선사께서 상속하셨기에, 의발이 면면부절 전해지고 있는 대흥사는 우리 종단 종지와 종통의 귀의처로 부족함이 없는 듯합니다. 오늘 청허 대선사의 탄신일을 맞아 우리 사부대중도 이 땅에 불조의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길을 참구하고자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대선사께서는 모든 생명을, '이름 붙일 수 없고 모양도 그릴 수 없는 본디 밝고 밝은 신령스러운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과 대선사께서 선언하신 생명의 가치를 마음 깊이 새기며, 현 시대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살피면, 다름 아닌 우리 모두가 '부처로 사는 일'이라는 해답은 더욱 명백해 집니다.

모든 생명이 존엄한 부처님이니 내 이웃을 부처님으로 공경하여 마음 나누는 일이 바로 보살행이고, 우리 모두가 관음보살이요 보현보살이 되어 이 자리 그대로가 화엄세계입니다. 존귀한 존재가 존귀하게 살아가고, 대접 받지 못하는 존재를 존귀하게 대접하는 일이 바로 지혜와 자비의 실천이며 부처의 길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뜻 깊고 환희로운 날입니다. 조계종문의 대선사요, 구국

의 성사이신 청허당 휴정 대선사의 의발과 유품을 모시고 그 종지를 선양하고 있는 대흥사는 호국의 산실이요, 국민과 국가의 행복과 번영을 선양하는 구국의 산실입니다. 회주 보선 스님의 지도력과 주지 범각 스님을 열정으로 반드시 한국불교의 중흥이 이 도량에서 개화만발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역사는 기억의 복원과 전승으로 구현되는 창조이자 새로운 인연입니다. 따라서 '해남 표충사 춘추제향'이 국가적 차원으로 복원하는 일에 대흥사 사부대중과 해남군, 전라남도과 중앙정부가 모두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희망하며, 종단적인 차원의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덧붙여 여객선 사고로 여리고 애꿎은 생명들이 온 국민과 나라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에 마주한 안타까움을 깊은 마음으로 함께하며, 하나하나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다시금 새겨봅니다. 소중한 생명이 밝은 광명으로 나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통의 무게를 정성으로 위무하고 나누신 이 지역의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오늘 청허 대선사의 494주년 탄신 기념 법석에 동참한 인연으로 모든 이웃들이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고 세상에는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8년 4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